

회계담당자의 윤리관이 이익조정인식에 미치는 영향

(Study on the Impact of Ethical Perspective on
the Perception of Earnings Management)

문 영 배* · 이 상 봉**

(Young-bae Moon · Sang-bong Lee)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III. 연구설계
- IV. 실증분석
- V. 결 론

I. 서 론

최근 국내의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엔론(2002), 우리나라의 기아(1998), 대우(2000), SK그룹(2003)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계부정사건(분식회계)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경영자는 일상적으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회계정책결정이 비록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강사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원칙(GAAP)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려는 것일 때, 그것은 비윤리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윤리적 관점에서 회계정책결정이 비록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이익조정행위는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실무에 있어서 회계담당자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최고경영자나 상사의 지시와 같은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최고경영자나 상사의 압력에 회계담당자가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 특히 윤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담당자들이 이익조정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회사나 경영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것인지 또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회계담당자는 경영자의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편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GAPP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지분소유자 또는 투자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려하는 의도가 있게 되면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조정행위는 최고경영자의 윤리관 및 철학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경영자에게 재무적 조언을 하는 회계담당자의 윤리관 및 전문가적 자질에 따른 회계담당자의 이익조정 인식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은 분기별 결산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공시하기 전에 조직 내에서 경영성과인 이익수치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회계담당자들은 경영성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경영자에게 여러 가지 조언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때문에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경영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회계담당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회계담당자의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이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윤리관(이상주의/상대주의)이 이익조정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전문분야몰입이 이익조정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목적들이 달성된다면 향후 연구자들에게 이익조정 인식에 있어서 윤리적인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회계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회계윤리교육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익조정

Schipper(1989)는 이익조정을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이익조정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는데, 한 가지는 투자나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조정하여 실제로 자원의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경영자는 연구개발비의 수준을 변경하거나 광고선전비를 조정하여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연말에 매출 시기를 조정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실질적인 자원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순이익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영자는 재고자산의 단가산정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변경을 통하여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불량채권의 대손상각비 추정이나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이나 내용연수 추정을 통해서도 순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Schipper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익조정을 GAAP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Healy와 Wahlen(1999)은 이익조정을 경영자가 투자자나 채권자를 오도하거나 회계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약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재무보고나 회계처리과정에 개입하여 공시되는 재무정보를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들은 회계추정을 변경시키거나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을 조정하거나 비용의 지출이나 수익의 인식시점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Schipper(1989)와는 달리 이익조정이 위법행위가 아닐지라도 비윤리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최관과 김문철(1997)은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행위를 검증하였다. 신규상장기업은 기존상장기업에 비하여 기업의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서 회계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신규상장기업의 경영자는 발행가를 유리하게 설정할 목적으로 재량적발생액(DA: discretionary accruals)을 통하여 상장 전 기간의 이익을 높이려는 충분한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재량적발생액(DA)의 추정은 수정된 Jones 모형(193-228)을 이용하여 산업-연도별 횡단면 분석으로 추정하였다. 즉 재량적발생액

(DA)은 총발생액에서 비재량적발생액(NDA)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액을 통한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행위는 상장 전 기간이 아닌 상장당해년도 및 상장직후 연도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량적발생액(DA)을 추정하는 대체적인 연구방법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발행가격 산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장 전 기간에 이익조정을 행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윤순석(1998)은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1994년과 199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익조정 현상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영업활동의 성과에 따라 이익조정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정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포트폴리오별로 이익조정에 있어서 체계적 차이가 발견되는가를 검증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평균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둘째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부호변화(영업현금흐름이 음수인데 당기순이익은 양수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정도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영업현금흐름과 금융비용 및 총발생액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또 램덤워크모형을 이용하여 재량적발생액을 추정하여 이익조정 현상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영업현금흐름이 음수인 기업들이 이익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기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과의 차이를 분석한 경우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경우나 부호의 변화를 분석한 경우 모두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업현금흐름이 음수인 집단이 당기순이익을 양수로 변환시키는 이익조정을 구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인데 실증분석결과도 이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부 집단의 경우에는 이익조정의 빈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이익조정의 크기는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영업현금흐름과 금융비용 간의 상관관계는 영업현금흐름이 음수인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총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영업현금흐름이 음수인 집단에서 특히 이익조정 정책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원선과 최관(1999)은 법인세 최소화 동기와 이익조정의 관계를 보다 일반화시켜서 연구하였다. 이익조정은 수정된 Jones모형(1991)과 Rangan(1998)이 사용한 모형을 각각 시계열적인 측면과 횡단면적 측면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상증

자 기업들은 산업평균보다도 순이익이 낮은 기업들이었으며 유상증자 1년 전부터 2년 후 까지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유상증자기업들의 현금흐름도 산업평균보다 낮았으며 유상증자를 실시한 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부진한 경영성과와 특히 불량한 현금흐름 때문에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였다. 순이익과 현금흐름의 차이인 발생액은 유동발생액이나 총발생액의 차이 모두 유상증자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이 시점에서 이익의 상향조정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2. 전문분야몰입

Kerr와 Schriesheim(1974)에 따르면 전문가는 장기간의 교육에 의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분야에 대해 몰입하며, 동일한 전문분야의 동료들에 대해 동일시하고, 동료들을 자신의 업무수행 및 성과에 대한 참조준거로 설정하며, 전문분야의 업무수행 시 최대한의 자율성을 요구하며, 업무수행이 개인적 이해에 좌우되지 않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표 2-1> 전문가의 특성

전문성(expertise)	장기간의 공식적 교육 및 훈련에 의한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과 능력
몰입(commitment)	자신의 일과 전문분야에 대한 소명의식
동일시(identification)	자신의 전문직업과 동료들에 대한 동일시
참조준거(reference)	동료 전문가를 특정성과의 평가준거로 설정
자율성(autonomy)	업무수행을 위한 수단과 절차를 선택하는 자유
윤리(ethics)	업무수행에 있어 개인적 이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감

Kerr와 Schriesheim(1977)이 제시한 <표2-1>의 전문가의 특성들은 Hall(1968)이 제정한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에서 유래된 것이다, 전문가주의는 전문가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Hall은 전문가주의의 다섯 차원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전문가는 자신의 주요 참조준거로 전문가조직을 사용한다. 전문가조직은 공식적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일 수도 있으며, 전문직업의 가치, 신념 및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전문가조직에 참가함으로써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자신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동료의식을 가진다.

둘째,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일반대중에 봉사한다는 신념을 가진다. 즉,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직업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며, 유익한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자기조절(self-regulation)에 대한 신념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외부인이 아닌 자신을 포함한 동일한 전문분야의 동료 전문가들만이 자신의 작업절차와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전문가는 전적으로 자신의 일에 헌신한다. 전문가에게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다른 목적에 대한 수단이 아니다.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것은 무엇보다 성취감과 같은 내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이며, 금전적인 외적보상은 이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능력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용에 평생 동안 헌신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로서, 자신의 일에 대한 의사결정이 전문분야의 기준이나 가치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며, 외부의 압력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한다. 특히 조직 측면에서의 외부압력(예: 경영층의 요구)은 전문가의 자율성과 대립될 소지가 많다.

Hall(1968)은 각 차원별로 10문항으로 구성된 전문가주의 척도를 개발하였고 다양한 전문직업군(회계사, 주식중개인, 의사, 간호사, 교사, 법률가, 공학자등)에 속한 328명을 대상으로 이 척도를 사용하여 태도적 측면에서의 전문가주의를 측정하였다.

전문분야몰입은 전문가주의와 개념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측정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전문가주의나 전문분야몰입은 모두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애착이나 몰입수준을 나타내는 태도이지만, 실제 사용되는 측정척도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 전문분야몰입은 조직 몰입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첫째,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과 수용 둘째, 자발적으로 조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 셋째,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계속 남으려는 강한 욕구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한다(Reichers, 1985).

Shaub 등(1993)은 207명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태도가 회계사의 전문분야 몰입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ranya 등(1981)의 논문을 확장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은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척도에 관한 개인의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Forsyth(1992)에 의해 발전된 EPQ(Ethical Posi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Shaub 등(1993)은 이 두 가지 윤리적 결정 관계가 회계사 개인의 전문분야몰입 수준과 윤리적 딜레마(상황판단)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한 전문분야몰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공인회계사는 이 검증 시나리오에 포함된 윤리적 이슈를 대략 절반 정도는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개인의 전문분야몰입이 윤리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서 그들은 전문분야몰입과 조직몰입 사이에 정(+)의 관계는 존재하며 이것은 전문분야몰입과 윤리적 태도 사이에서 불일치(충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Greenfield Jr.(2005)는 개인의 윤리적 태도와 전문분야몰입수준이 이익추구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haub 등(1993)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분야몰입수준은 이익조정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Jeffrey와 Weatherholt(1996)는 102명의 공인회계사와 85명의 기업의 회계사를 대상으로 전문분야몰입수준과 윤리적 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이 두 그룹 사이에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또한 공기업의 전문분야몰입은 지위에 따라 달라진 반면, 윤리적 태도는 그렇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낮은 수준의 전문분야몰입은 높은 수준의 윤리적 태도를 이끄는 반면 높은 전문분야몰입은 적당한 수준의 윤리적 태도를 만든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2.3. 윤리관과 이익조정

윤리관을 유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로 서양의 윤리적 철학에 근거하여 의무론(deontology), 목적론(teleology)과 회의주의(skepticism)로 분류된다. Schlenker와 Forsyth(1977)는 이러한 세 가지 철학적 개념으로 상대주의(relativism)와 이상주의(idealism)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상대주의 윤리관이 강한 사람들은 회의주의자들처럼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반면에 상대주의가 약한 사람들은 의무론자나 목적론자들처럼 자연법이 존재하며, 이 자연법이 행동을 평가하는 적당한 도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상주의 윤리관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바람직한 행동은 항상 자연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상주의 윤리관이 약한 사람들은 실용주의 측면을 강조하여

행동을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은 부분적으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Forsyth(1980)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정신적 태도 그리고 가치는 통합된 개념체계 또는 개인적 도덕철학을 구성한다고 가정하여 개인의 윤리관을 측정하는 일련의 척도인 EPQ(Ethical Position Questionnaire)를 상대주의와 이상주의 두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상대주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관련시켜 묘사했다. 높은 수준의 상대주의자는 개인의 윤리적 신념에 관한 집단의 규칙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형적으로 특정 개인을 포함한 상황이 의사결정의 도덕성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낮은 수준의 상대주의자는 개인의 도덕과 관련된 원칙과 법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이상주의는 의사결정 관점을 인간의 복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상주의적인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향상에 피해를 주는 것은 방지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어떤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 이상주의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며,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은 보다 나은 선(good)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한다.

Barnett 등(1998)은 381명의 미국마케팅협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대주의자와 이상주의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마케팅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판단을 검증했다. 연구결과 이상주의자들은 경영 의사결정을 비윤리적이라 생각하는 반면, 상대주의자들은 윤리적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개인의 도덕적 철학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며, EPQ는 개인의 도덕적 철학을 평가하는데 있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Douglas와 Wier(2000)는 경영자의 윤리적 태도가 예산슬랙(budget slack)¹⁾의 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220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자들은 예산슬랙은 계획된 성과목표와 실제성과 역량의 차이라고 규정하였다. 연구결과 특정그룹 조사를 통하여 상대주의 수준이 더 높은 그룹은 더 많은 예산슬랙을 실행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반대로 이상주의 수준이 더 높은 그룹은 예산슬랙 정도가 낮았다.

1) 예산슬랙 : 각 부서 및 개인이 예산(계획 및 목표설정)을 수립할 때, 비용은 가능하면 과대계상하여 비용 절감목표를 극대화 시키고, 수익(판매량, 생산량)은 적게 계상하여 매출목표달성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 각 부서 및 개인에게 부여된 예산목표를 쉽게 달성하여 높은 성과평가점수를 받으려는 현상

Chonko 등(2003)은 미국소매업협회(U.S. Direct Selling Association) 소속 286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가 이상주의와 상대주의자들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윤리규정의 유용성과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이 상대주의자들보다 윤리규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그의 가설은 지지되었고, 환경적 변화가 증가할수록 이상주의자는 상대주의자보다 윤리규정에 더 의지하며, 윤리적 행동은 개인이 윤리규정에 좀 더 익숙해질수록 강화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윤리의 절대적인 규정이 존재할 때까지 경영의사결정은 여전히 개인의 윤리적인 신념에 달려있으며, 결정의 옳고 그름 또한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Elias(2002)는 윤리적인 관념과 이익조정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알아보기 위해 763명의 회계관계자, 교수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연구결과는 상대주의자의 판단이 이상주의자의 것보다 더 관대한 윤리적 행동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Clikeman와 Henning(2000)은 56명의 회계학과 학생들과 77명의 다른 경영학과 학생들을 표본으로 하여 회계교육은 회계학생들로 하여금 재무제표의 사용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는 재무제표 사용자는 경영에 의해 오도된 윤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대학 4학년이 2학년보다 더 많이 이익조정을 배척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물론 회계학과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해서 이익조정을 무시하려 하지 않았다. Greenfield Jr.(2005)는 미국의 북중미 두 대학에서 145명의 회계학과 학생과 230명의 경영학과 학생들을 경영자 대리인으로 설정하여 이익조정상황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고려한 개인의 역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윤리적 태도와 전문분야몰입은 개인의 이익추구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국내연구에서 정재율(2001)은 경영학부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윤리수준 변수인 도덕적 발달수준과 성격변수인 통제의 원천이 윤리적 딜레마가 회계담당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도덕적 발달수준과 통제의 원천은 회계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도덕적 발달수준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비윤리적인 측면이 큰 상황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통제원천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사의 압력과 같이 외생요소의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익조정연구는 이익조정의 발견과 이익을 조작하려는 경영자의 목적에 초점을 두는 반면 윤리학 연구는 윤리학교육, 전문분야몰입 그리고 윤리적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두 가지 부분을 합쳐서 연구되어왔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요인(윤리관, 전문분야몰입, 이익조정)을 포함함으로써 Greenfield Jr.(2005)의 연구를 재검증 하고자 한다. 특히 회계담당자의 이익조정 인식에 개인의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영자의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이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Greenfield Jr.(2005)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이익변수를 제거하였다. 왜냐하면 회계담당자들은 스스로 이익조정결정을 한다기 보다는 경영자와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익조정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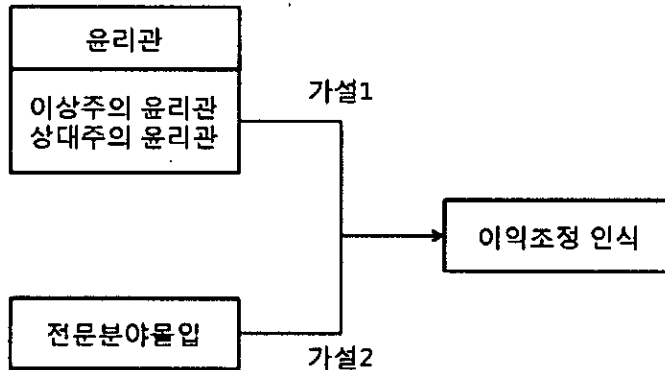
III.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이익조정에 대한 실험연구는 개인의 윤리관이 이익조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독립변수는 개인의 윤리관에 따른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전문가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전문분야몰입수준 등이다.

Forsyth(1992)의 연구는 개인의 윤리적 이데올로기를 상대주의와 이상주의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이익조정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ub 등(1993)의 연구는 윤리적 민감성을 윤리적 태도와 전문분야몰입으로 확장하여 연구한 결과 이익조정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per-Hakim과 Viswesvaran(2005)의 연구는 조직몰입과 전문분야몰입 사이의 관계분석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분야몰입은 높은 전문분야 행위 수준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이익조정 행위는 개인의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 요인에 의해서도 대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경영자 또는 경영자로 가정했을 때의 실험적 연구를 통해 이익조정행위를 연구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회계담당자를 표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익조정행위를 직접 측정하기에는 알맞지 않았다. 때문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이익조정행위가 아닌 이익조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식 즉, 이익조정 인식을 설정하여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인의 상대주의 윤리관, 이상주의 윤리관, 전문분야몰입, 이익조정 인식이라는 측면을 통해 그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2. 가설설정

3.2.1. 회계담당자의 윤리관과 이익조정 인식

Forsyth(1990)에 따르면, 상대주의 윤리관이 높은 사람은 첫째 상황, 둘째 인정된 규정에 기준을 두고 의사결정을 고려한다고 한다. 이것은 상대주의적 윤리관이 높은 개인은 의사결정결과 특정상황(환경)에서 중요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상주의 윤리성향이 높은 사람은 관계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피해(손실) 수준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즉 이상주의적 윤리관이 보다 높은 사람은 모든 의사결정을 그 결과의 좋고 나쁜 결함보다는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윤리적관(상대주의와 이상주의)은 기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익조정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사결정의 한 예이다. 상대적으로 이상주의 윤리관이 강한 사람은 이익조정

이 자신들이 피하려고 하는 것 즉,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손실)를 입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조정하려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Forsyth, 1992). 또한 이상주의적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은 보다 엄격하게 윤리적 판단을 할 것이며,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의사결정을 더 선호할 것이다(Elias, 2002). 상대주의적인 윤리관이 높은 사람들은 먼저 환경(상황)을 생각하고, 그 결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손실은 생각하지 않는다(Forsyth, 1992).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관대하게 결정(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익조정상황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고려한 개인의 역량이 차이는 개인의 윤리적 성향에 따라 이익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Greenfield Jr. 2005).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익조정 인식은 이상주의 윤리관 및 상대주의 윤리관과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주의윤리관을 가진 회계담당자가 윤리적 딜레마와 같은 어려운 의사결정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 때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보다 더 윤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반면 상대주의 윤리관을 가진 회계담당자는 경영자나 회계책임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의 윤리적 신념보다도 상사의 지시에 따라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즉 이상주의 윤리관이 높은 회계담당자일수록 이익조정 인식은 낮아지고, 상대주의 윤리관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 인식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1을 설정하였다.

- 가설1: 회계담당자의 윤리관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가설1-1: 이상주의 윤리관은 기업의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상대주의 윤리관은 기업의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전문분야몰입과 이익조정

기업환경 특히 이익수준이 재무 분석가들의 예측치과 일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익조작으로부터 생겨나는 잠재적 이익(효익)은 이익조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본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관(도덕적가치관)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몰입은 이익조정 인식에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Greenfield Jr.(2005)는 개인의 윤리적 태도와 전문분야몰입이 이익추구 성향에 따라 개인의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Shaub 등(1993)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분야몰입수준은 이익조정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iegenfuss(2001)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윤리강령이 있는 경우 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전문분야몰입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전문분야에 몰입하게 하고 그 전문분야의 윤리강령이 주어진다면 이익조정행위는 줄어들 것이다. 그 반대로 전문가들이 몰입을 하지 않는 경우 이익조정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전문분야몰입과 이익조정 인식 간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다. 전문가는 '몰입딜레마' 또는 '조직-전문가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분야 대한 몰입으로 인해 그들이 소속된 조직이익보다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 관료주의적 특성을 보일수록 두 몰입 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문분야몰입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 인식은 낮아지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2: 전문분야몰입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방법

3.3.1. 설문지 설계 및 자료처리내용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의 설문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제에 적합하게 수정을 가한 후 설문지 개발의 일반적 기준에 유의하면서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위해서 제주대학교경영대학원 세정대학원생, 경영대학원생 및 제주시내 일부 기업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5개 항목 29문항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익조정 시나리오, 전문분야몰입 시나리오, 상대주의 시나리오, 이상주의 시나리오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은 성별에서부터 직급까지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항목에 사용된 시나리오 사례는 Clikeman과 Henning(2000) 그리고 Greenfield

Jr.(2005)의 연구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순이익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당해연도이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일상적인 제조설비의 수선유지를 다음해로 연기시킬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경영자는 예상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의 주식가격과 채권의 신용등급에 대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방법으로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모든 설비보수 계획을 다음해 3월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설비보수 계획이 연기되면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경영자나 회사의 평판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읽고 회사의 이익조정 인식에 대한 지지정도를 리커트 7점 척도에 의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지정도(수준)는 이익조정 인식의 대응치이고 본 연구에 있어서 종속변수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회계담당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조정행위를 결정할 수 없으며, 이익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게 되었다.

윤리관인 상대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한 물음은 Forsyth(1992)의 EPQ 내용을 사용하였다. 상대주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관련시켜 묘사했으며, 이상주의는 의사결정 관점을 인간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문분야몰입과 윤리관에 대한 질문은 리커트 7점 척도크기로 사용되었으며, 응답표시는 동의여부를 가지고 각각 설문지에 1번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7번은 매우 동의한다고 구성하였다. 설문지구성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조사내용	문항 수	출처
인구통계적 특성	8	명목, 서열, 등간, 비율척도
이익조정 인식 (시나리오)	1	Clikeman & Henning(2000)
전문분야 몰입	10	Aranya등(1981)
상대주의 윤리관	5	Forsyth(1992)
이상주의 윤리관	5	Forsyth(1992)

3.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이익조정

이익조정은 Greenfield Jr.(2005)가 사용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회사는 겨울휴가 시즌인 12월 3주와 4주에는 영업을 하지 않으며, 휴가 기간 동안 설비자산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해왔습니다. 설비보수 비용 금액은 매우 크고, 관행상 당해 연도 비용으로 회계처리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회사의 이익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자는 예상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의 주시가격과 채권의 신용등급에 대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는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모든 설비보수 계획을 다음 해 3월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설비보수 계획이 연기되면 올해 12월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이 없기 때문에 올해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경영자나 회사의 평판도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시나리오에서 설비보수에 대한 내용을 연기하여 처리하겠느냐는 질문을 통해 이익조정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였다.

2) 상대주의와 이상주의

Forsyth(1992)는 개인의 윤리적 이데올로기를 상대주의와 이상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보다 높은 상대주의 윤리관을 지향하는 개인은 특수한 상황을 기반으로 이익조정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주의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환경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결정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보다 높은 이상주의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결정으로부터 누군가가 상황이 더 나빠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결과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들은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주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관련시켜 묘사되었으며, 이상주의는 의사결정 관점을 인간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조작되었다. 이것은 Greenfield Jr.(2005)의 연구에 적용되었던 Forsyth(1992)의 EPQ 사례를 재인용한 것이다.

3) 전문분야몰입

전문분야몰입은 조직몰입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첫째, 전문가직업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신념과 수용 둘째, 자발적으로 전문분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 셋째, 전문분야의 한 구성원으로 계속 남으려는 강한 욕구로 구성된다고 정의를 내렸다(Porter et al., 1974). Shaub 등(1993)은 회계감사인의 윤리관이 그들의 전문분야몰입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실험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전문분야몰입은 그들의 윤리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이를 근거로 Greenfield Jr.(2005)는 Shaub 등(1993)의 연구를 확장하여 전문분야몰입이 개인의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분야몰입수준은 이익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계담당자개인의 윤리관을 통해 전문분야몰입수준이 이익조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Greenfield Jr.(2005)가 이용한 설문사례를 재인용하였다.

3.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은 상장기업(외부감사대상기업)의 회계담당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담당자로 조사대상을 한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실시한 후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같은 방식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셋째, 설문조사 시점은 2009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총 1,200부를 송부하여 301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로 판단되는 16부를 제외하여 28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IV. 실증분석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 설계에서 설문문항으로 설계한 변수가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응답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모델로는 주성분분석 방식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베리맥스(Varimax)를 선택하였으며, 요인추출기준으로는 고유치(eigen-value) 1.0 이상의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은 이상주의 윤리관, 상대주의 윤리관, 이익조정, 전문분야 몰입의 총 4개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이상주의 윤리관과 상대주의 윤리관은 표본의 윤리관을 측정하는 문항이며, 나머지 2개 문항은 회계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및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개의 범주로 연구 개념을 구분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 윤리성에 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	요인		공통성	항목삭제 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1	2			
이상주의 윤리관	is1	.889	-.313	.888	.970	.974
	is3	.877	-.389	.920	.965	
	is4	.865	-.381	.894	.968	
	is5	.864	-.388	.896	.968	
	is2	.857	-.346	.933	.964	
상대주의 윤리관	rs2	-.313	.837	.799	.870	.904
	rs4	-.335	.807	.763	.874	
	rs1	-.337	.804	.760	.877	
	rs3	-.340	.762	.697	.887	
	rs5	-.392	.673	.608	.900	
고유치		7.086	1.072	총분산설명력=81.577		
분산설명력		70.861	10.716			
KMO=.936, Bartlett's 구형성검정치(df)=3192.046(45), 유의확률=.000***						

*** p<.001

<표 4-1>의 윤리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분석 결과 KMO 값이 .936으로 .5보다 높고 Bartlett's 구형성검정치 3192.046도 유의한 값을 나타내 10개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첫 번째 요인은 이상주의 윤리관과 관련된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요인은 상대주의 윤리관 관련 변수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상주의 윤리관'과 '상대주의 윤리관'이라 요인명을 정하였고 각각의 신뢰도계수는 .974와 .904로 매우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적재량을 살펴볼 때 이상주의 윤리관과 상대주의 윤리관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항들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유치 1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을 때 두 개 요인의 총분산설명력은 81.577%로 나타났다.

<표 4-2> 전문분야몰입에 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	요인	공통성	항목삭제시 신뢰도계수	신뢰도 계수
		1			
전문분야 몰입	pc3	.821	.812	.923	.937
	pc5	.813	.704	.928	
	pc1	.803	.723	.927	
	pc6	.801	.723	.929	
	pc4	.785	.621	.932	
	pc7	.782	.636	.933	
	pc2	.741	.671	.932	
	pc8	.673	.668	.929	
	pc9	.565	.660	.933	
고유치		8.593	총분산설명력=76.800		
분산설명력		61.378			
KMO=.927, Bartlett's 구형성검정치(df)=4498.777(91), 유의확률=.000***					

*** p<.001

전문분야몰입에 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KMO 값은 .927로 .5 이상이며, Bartlett's 구형성검정치는 4498.777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요인분석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총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신뢰도계수는 .937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고, 고유치 1을 기준으로 할 때 충분신설명력은 76.800의 값을 나타냈다.

4.2. 상관관계분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에 제시된 변수들을 고려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3> 상관관계분석

구 분		이익조정 인식	이상주의 윤리관	상대주의 윤리관	전문분야 몰입
이익조정 인식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	-			
이상주의 윤리관	Pearson 상관계수	-.627 ***	1		
	유의확률(양측)	.000	-		
상대주의 윤리관	Pearson 상관계수	.718 ***	-.698 ***	1	
	유의확률(양측)	.000	.000	-	
전문분야 몰입	Pearson 상관계수	-.521 ***	.715 ***	-.460	1
	유의확률(양측)	.000	.000	.000	-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이익조정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상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상대주의 윤리관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문분야몰입의 경우는 이익조정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상주의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상대주의 윤리관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 인식도 높은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관관계 전체를 살펴볼 때 상대주의 윤리관, 이익조정 인식 간에는 상호 양(+)의 관계

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 개념과 구분되어 전문분야몰입과 이상주의 윤리관이 상호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전문분야 몰입, 이상주의 윤리, 상대주의 윤리관을 설정한 후 종속변수인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가설검증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이익 조정 인식	(상수)	-.038	.042		-.912	.363		
	이상주의 윤리관	-.520	.054	-.505	-9.545	.000***	.614	1.629
	상대주의 윤리관	.608	.041	.622	14.978	.000***	.995	1.005
	전문분야 몰입	-.343	.053	-.343	-6.480	.000***	.612	1.633
R2= .720		수정된 R2= .513		F-value= 100.692		Prob=.000***		

* p<.05, ** p<.01, *** p<.001

분석결과, F값이 100.692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을 볼 때 p<.001 수준에서 유의한 다중회귀분석이 이뤄졌음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수정된 R2 값이 .513으로 독립변수인 전문분야 몰입, 이상주의 윤리관, 상대주의 윤리관이 이익조정 인식을 51.3% 설명해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공선성 분석 결과 VIF 값이 모두 3 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독립변수간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아 적정한 다중회귀분석이 이뤄졌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4.3.1. 이상주의 윤리관이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상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1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익조정 인식의 상관관계가 $-0.286(P=0.000)$ 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도 t값이 -9.545 로 $p<0.001$ 수준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귀계수 값이 -0.520 으로 이상주의 윤리관이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1은 채택되었다. Greenfield Jr.(2005)의 연구에서도 이상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회귀계수를 살펴볼 때 이상주의 윤리관은 전문분야몰입보다 더 높게 이익조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주의 윤리관이 높은 회계담당자는 윤리적 의사결정관점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복지향상에 피해를 주는 것은 거부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4.3.2. 상대주의 윤리관과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상대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2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익조정 인식의 상관관계가 $0.601(P=0.000)$ 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도 t값이 14.978 로 $p<0.001$ 수준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귀계수 값이 0.608 로 상대주의 윤리관이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절대값으로 이익조정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대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Greenfield Jr.(2005)의 연구에서도 상대주의 윤리관이 이익조정행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ouglas와 Wier(2000: 267-278)의 연구에서도 상대주의 윤리관이 강할수록 예산슬랙이 더 많이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상대주의 윤리관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을 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주의 윤리관이 높은 회계담당자는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 보다도 기업의 특정 상황이 도덕성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3. 전문분야몰입이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전문분야몰입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익조정 인식의 상관관계가 $-0.398(P=0.000)$ 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도 t 값이 -6.480 으로 $p < .001$ 수준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귀계수 값이 -0.343 으로 전문분야 몰입이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문분야 몰입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전문분야몰입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인식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문분야몰입이 높은 회계담당자일수록 ‘몰입딜레마’ 또는 ‘조직-전문가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분야 대한 몰입으로 인해 조직이익보다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을 보여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 관료주의적 특성을 보일수록 전문분야몰입은 높게 인식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Shaub 등(1993: 145-165) 과 Greenfield Jr.(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V. 결 론

회계담당자의 윤리관은 기업에 있어서 윤리경영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회계담당자의 윤리성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있고, 기업실패는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회계윤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회계담당자의 윤리관에 대한 연구는 윤리관 자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회계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규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와 관련하여 경영자 개인의 윤리적 태도가 이익조정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편이다. 더구나 기업의 이익조정행위는 내부정보생산자인 경영자나 회계책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회계담당자 개인의 윤리관이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요인 즉, 상대주의 윤리관, 이상주의 윤리관, 전문분야 몰입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추출하고 이러한 개념들과 회계담당자의 이익조정 인식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주의와 이상주의 윤리관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상호관계는 음(-)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마다 상대주의와 이상주의 윤리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두 윤리관은 평형상태를 이룬다기 보다는 하나의 윤리관이 강하게 나타나면 다른 한 쪽의 윤리관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절대적인 진리나 윤리관이 있다는 관점이 강할수록 전문분야 몰입 정도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리학 측면에서 볼 때 상대주의 윤리관과 이상주의 윤리관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지만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서는 이상주의 윤리관이 강할수록 전문분야 몰입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전문분야몰입과 이상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상대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계담당자들이 전문분야몰입을 높인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이익조정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영자나 지분소유자의 압력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질에 의해서 이익조정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익조정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더불어 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윤리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회계 또는 경영학전공학생이나 회계감사인에 대한 윤리교육은 한 사업체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윤리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계윤리교육을 강화시키고 일선의 경영자에게 윤리경영에 대한 소양을 넓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업체들의 투명한 경영 정도

를 높이는 주요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가 설문지를 통한 연구이기 때문에 설문내용이나 설문지 구성문제로 인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이익조정은 최고경영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최고경영자와의 심층적인 면접을 통하여 좀 더 심도 있는 행동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윤리교육을 받은 집단과 윤리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실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구배·김미화·기종진(2001), “윤리적 가치관이 회계전문직의 이익관리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학회, 2004』, 29(1), 53-59.
- 박춘래·김성민(1996), “법인세율 인하와 이익관리”, 『회계학연구』, 21(4), 79-97.
- 백원선·최관(1999), “이익조정과 법인세 최소화 동기”, 『회계학연구』, 24(1), 115-140.
- 윤순석(1998), “영업현금흐름에 따른 이익관리 현상에 대한 연구”, 『회계학연구』, 23(1), 107-126.
- 정재울(2001), “도덕적발달수준과 통제의 원천이 회계담당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추계학술연구발표논문집, 2001』, 23, 23-51.
- 최 관·김문철(1997),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22(2), 1-28.
- Barnett, T. and Vaicys, C.(2000),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 of ethical work climate on ethical judgments and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27(4), 351-362.
- Chonko, L. B., Wotruba, T. R. and Loe, T. W.(2003), “Ethics Code Familiarity and Usefulness: Views on Idealist and Relativist Managers under Varying Conditions of Turbule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42(3), 237-252.
- Douglas, P. and Wier, B.(2005), “Integrating ethical dimensions into a model of budgetary slack-cre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28, 267-278.
- Elias, R. Z.(2002), “Accountants' perceptions of the ethics of earnings management”, *Research on Accounting Ethics*, 8, 103-124.
- Forsyth, D. R.(1980), “A Taxonomy of Ethical Ide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75-184.
- Greenfield Jr., A. C.(2005), “Introducing an Ethical Dimension into the Earnings Management Decision”,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A Doctor's Degree.
- Hribar, P. and Collins, D.(2002), “Errors in Estimating Accruals: Implications for

-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 105-134.
- Jeffrey, C. and Weatherholt, N.(1996), “Ethical development, professional commitment, and rule observance attitudes: A study of CPAs and corporate accountants”, *Behavioral Research in Accounting*, 8, 8-31.
- Kerr, S. and Schriesheim, C. A.(1974), “Consideration, initiating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riteria—an update of Korman's 1966 review”, *Personnel Psychology*, 27, 555-568.
- Ponemon, L. A.(1993), “Can ethics be taught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Fall, 1-29.
- Porter, L. W., Steers, R. M., Mowday, R. T., and Boulian, P. V.(1974),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among psychiatric technicia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9, 603-609.
- Shaub, M. K., D. W. Finn and Munter, P.(1993), “The effects of auditors' ethical orientation on commitment and ethical sensitivity”, *Behavioral Research in Accounting*, 5, 145-169.